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 '휴머니티'

기본계획 등 확정... 9월 7일~10월 31일 광주비엔날레관 등서 개최

인간+공동체 실현 도구로써의 디자인 조명 '바우하우스' 100년전·북유럽 사회적 디자인 소개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주목하는 건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상생과 배려'다. 올 행사는 디자인의 근본적 가치는 사람 중심의 사고에서 시작되고, 더 나아가 인류 공통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와 혁신의 도구가 되는 게 바로 '디자인'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해 전시회를 기획한다.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위성호)는 11일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오는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5일간 광주비엔날레관, 광주디자인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열리는 올해 전시 주제는 '휴머니티(HUMANITY : Humain+Community)'다. 인간과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배려를 통해 인류애를 실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본질과 역할, 가치의 실현을 시민과 공유하는 의미를 담은 주제로 지역 산업과 디자인 비즈니스 수요창출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올해 비엔날레는 주제전·국제전 등 본전시와 특별전·지역산업전(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디자인 페어), 국제학술 행사,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주제전은 '사람을 노래하다(Humanity and Design)'를 주제로 진행된다. 인간 개개인의

삶과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구체화하는 혁신의 도구로 기능하는 디자인의 세계를 조망하는 기획으로 유희하고, 공감하고, 진보하는 인간에서 한 발 나아가 '진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음 세대에 주는 선물(Humanity for next generation)"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전은 현대 디자인의 출발점이었던 '바우하우스' 창립 100주년과 연계한 전시가 눈길을 끈다. 또 국내에서도 관심이 많은 북유럽의 '인간 중심 디자인'과 '사회적 디자인' 사례도 전시할 예정이다.

특별전은 '사람, 사람들을 위한 기술(Humanity by new technology)'을 주제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기술 속에 숨어 있는 공동체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준다. 또다른 특별전 '응답하라 나, 나 우리!(Humanity of communication)'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디자인 등 소통과 공감에 기여한 사례를 보여주는 '체험형 전시'로 꾸며진다. 관람객들은 농업·물류·취미·여가 등 다양한 체험존에서 무한한 탐험을 할 수 있다.

지역산업전 '광주다움, 광주 사람의 생각들(Local innovation and humanity)'은 지역 혁신과 공동체 소통을 주제로 전시와 함께 산



이길형 총감독

업군과 국내외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행사로 구성된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 지역 수출유망 제조기업 약 50개사의 100여개 상품들을 선보이고, 광주비엔날레본전시관에

서는 기업의 상품 전시와 지역 디자인 및 공예 상품을 현장 판매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그밖에 사전포럼과 개막식 심포지움 등으로 구성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인문학과의 연계한 '휴머니티 토크 콘서트',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초·중고 교육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또 시 전역에 '디자인스팟'을 운영,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과 연계한 사전 디자인전시 및 체험행사를 진행하며 구급의 '아트&컬처'와 연계한 인터넷 전시 및 홍보를 통해 전세계 인터넷 유저 대상의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디자인센터는 3월 중순까지 큐레이터 선정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오는 4월 초에 전시 및 행사를 세부화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아자동차,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력, 광주그린카인충원 등 지역산업 연계 기관도 구축한다.

이길형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홍익대 광고디자인학과 교수)은 "이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사람 중심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고 디자인적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류애를 실현하는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담양 습지

실경 산수로 만나는 남도의 강

장지성전 31일까지 워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

한국화가 장지성 작가 초대전이 오는 31일까지 (워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 (관장 장희정) 2층 기획전실에서 열린다. '강변소요(江邊漁)'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호남의 젓줄' 영산강 일대의 풍광을 소재로 한 실경산수로 이번 전시를 위해 장 작가는 영산강과 그 주변을 답사하고 사색했다. 산수풍경을 즐겨 그리는 작가에게 이번 전시를 위한 답사는 '흐르는 강물을 우두커니 바라보거나 강변에 난 소소한 풀들과 꽃과 나무 사이를 걷는 것은 잠시나마 복잡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자연 안에서 자유를 느낀 시간'이었고 그 감흥을 화폭에 담았다.

화폭에 담긴 풍경은 담양 습지에서 목

포 영산강 하구언까지 강을 따라 펼쳐지는 여러 풍경들이다. 작가는 전통적인 산수화의 기법을 활용해 정통 수묵 또는 채색 산수화를 현대적 풍광에 대입시켜 현대적 실경산수화로 표현했다.

실경산수를 정통으로 수확하고 작업해 온 장 작가는 전주대 미술교육학과 교수, 간송미술관 연구원으로도 활동중이며 '진경산수화전' 등을 개최했다.

장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흡수하는 조선후기 진경산수화가 겹쳐 정선의 고창 땅 나주의 주변을 걸으며 그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더 뜻깊었다"고 말했다. 문의 061-335-08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말의 알' 찾아나서는 아빠 '용감한 탄티'

ACC 16~17일 어린이극장

방글라데시 민담을 각색한 어린이공연 '용감한 탄티' (사진)가 오는 16-17일 오전 11시·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어린이극장에서 열린다.

극단 파랑새의 '용감한 탄티'는 방글라데시 민담 '말의 알을 찾아서'를 소재로 한다. 말을 타고 학교에 가고 싶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말의 알을 찾아 나서는 아빠 '탄티'의 엉뚱 발랄한 여정을 보여준다.

광주지역 공연단체 극단 파랑새는 지난 1989년 창단한 뒤 어린이연극 등 공영연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정문희씨가

극작·연출을 맡고 임흥석, 이현숙, 김경옥씨가 출연한다.

'용감한 탄티'는 추석 연휴인 9월12-13일 다시 만날 수 있다.

또 스텝과 그림동화에서 이야기를 빌린 '우산도둑' (4월13-14일·10월12-13일)과 '보야야르의 노래' (미안날, 6월15-16일·11월23-24일), '달아난 수염' (스리랑카, 8월17-18일), '새해는 어떤 계절에 시작될까?' (카자흐스탄, 7월13-14일·12월14-15일) 등 ACC 창작작 공연이 어린이 관객을 찾아가고 있다. 만 36개월 이상 관람가. 전석 1만원.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거침없는 '여자라면...'

김미애전 19일까지 서울 인사동 G&J 광주·전남 갤러리

그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거침이 없다.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팝아트 작품들은 도발적이기도 하다.

김미애 작가 개인전이 서울 인사동 G&J 광주·전남 갤러리에서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여자라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제도권에서는 숨기고 감춰야만 하는 여성(성)에 관한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작품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성(gender)의 차이로 만들어진 사회적 시선들과 억눌렀던 분노를 벗어던진 자

유롭고 주도적이며 주체적인 여성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성적으로 소외된 모든 계층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 속 여성은 반항적인 작가의 자화상이자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 있어 솔직한 현대 여성의 모습으로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스스로 당당한 여성이 추구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아름다움이다.

전남대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한국국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팝아트 작업을 바탕으로 현대 여성과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It's better than you'

Gwangju Design Biennale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